



클로즈·업

江原道支部長 金東根씨

○ …寄協 江原道지부장 金東根씨 —.

81세의 高齡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모에서는 젊은이 못지 않은 패기가 넘쳐 흐른다.

하얀살결속에서도 약간 발그레한 그의 얼굴은 老益壯으로 더욱 건강하게 보인다.

— 寄協 강원지부 지부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어언 1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느끼신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내년이면 寄協창립20주년을 맞는다고 하니 더욱 감화가 새롭습니다.

처음 내가 지부장으로 취임할때만 해도 춘천시 약사동 3층 조그마한 방에서 접방살이를 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참 고생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도 정신력과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니깐요.

마침 이때 지부장으로 취임, 어떻게 하면 지부 청사를 만드나 하고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훌륭한 청사에서 일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 지부장님이 취임후 강원도지부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침으로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취임후 4,5년후에 독립청사를 짓자는 결론이 나왔지요. 당시의 부지사와 나, 그리고 당시 사무국장인 한상익씨가 모여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부지를 물색하자고 하여 후평동 산꼭대기에 300坪 규모의 땅을 잡았지요. 땅값은 道費와 본부 지원금 半半씩으로 충당했습니다.

이후 4,5년이 지나서 드디어 강원지부청사 신축 순서가 되어 차례가 왔으나 위치가 부적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자리를 잡은것이 지금의 효자동에 300평을 샀지요.

당시 사무총장인 이우복씨와 건축문제를 확정 짓고 77년도에 현사무국장인 임용직국장의 손에 의해서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당시를 회고하는 노지부장의 얼굴에는 그때의 여러가지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 가는듯 새로운 감회에 잠겨곤 한다. 동석한 林容直사무국장도 당시의 건축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金지부장과 對談광경 : 右로부터 金지부장 鄭炳敎실장 林容直국장, 咸俊鎬과장





『지부청사가 없는 셋방살이의 서러움은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서러움입니다.

더구나 다른 지부청사는 건축금 일부를 외원을 받아 지었는데 반해 우리 지부는 100% 국내자본으로 건축했다는데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동력이 전무한 상태로서 고역을 치뤘냈지요. 지금 생각해도 여러직원들의 고생에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저축한 적립금으로 지어서 그 의의가 더욱 크노라면서 수송수단도 지금은 2대의 차량으로 기동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자랑하기도 —.

金東根지부장은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육계에 투신, 해방 당시까지만 해도 23년간을 오로지 2세 양성을 위한 일선교사로서 몸을 바쳐왔다.

8·15 해방후 도시학(지금의 장학사)을 시발로 해서 그후 22년간을 도행정예 몸바쳐 문경과장을 7년 역임후 道内 面소재지 공립중고등학교는 전부 金지부장이 세운 학교들이다.

4·19이후에는 문교사회국장을 거쳐 강원도 초대 교육감에 취임, 줄곧 교육의 총사령관으로서 교육에 몸바쳐 온 강원도교육의 귀감이기도 하다.

金지부장은 65세, 정년이 되기까지 45년간을 오로지 공직에 몸바쳐온 이래 23년을 일선교단에, 22년을 행정에 몸바쳐온 강원도 교육의 표본이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반공연맹 지부장 재임시였어요. 당시 최낙중 도립병원장과 한상익사무국장이 두번씩이나 내방하여 지부장 취임 승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리하여 지부장으로 취임후 오늘까지 별과없이 지나온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자라는데 까지 열심히 일해야지요.』

—健協사업이나 齋協사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며 구상이나 계획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健協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73년도

일본에 갔을 당시만해도 그곳 가나가와깡에서는 成人病예방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도 벌써 기생충사업은 완결되어 기생충표본 얻기가 어려워 표본을 한국에 부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로 이제 국민소득도 높아졌고 건강관리를 소중히 하자는 인식들을 하고 있으니 당연한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시설면에서도 충분히 기자재가 들어와야하고 직원들의 실력도 배양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도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일을 할려면 무엇보다 예산의 뒷바침이 절대 필요하고 직원들의 교양이나 실력의 향상이 더욱 필요합니다.』

金東根지부장은 지금까지 살아온 人生을 결산하면서 그의 生活哲學을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첫째로 지금은 황금만능시대입니다. 마음가짐이 虛心虛勢를 부리면 쓸데없는 욕심이 생깁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과 활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앞날의 영광을 염두에 두지않고 오늘에 주어진 생활을 충실히 하면 그것이 바로 생활 철학입니다.

·인간은 본래 性善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주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휘말리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무리한 생활을 하지말아야 합니다. 나는 80평생을 외상이나 빛을 모릅니다. 평생을 은행돈 한번 쓴적이 없습니다.

요즈음은 인간자체가 부패해 있는것 같애 통탄을 금할 수 없어요. 의식개혁을 부르짖는것 자체가 인간성의 不在를 보는것 같애 마음 아픕니다.』

林容直사무국장은 金지부장의 공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

『金지부장님은 강원도내에서 공직자로서 제일 고령이십니다. 도내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는 有名人이십니다. 그간 공직도 많이 맡으셔서 三樂會회장(교직원 정년퇴임회), 적십자사 지사장, 반공연맹 도지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에는 유일하게 寄協道지부장만을 맡고 계십니다. 아마 앞으로는 平生맡으셔야겠지요 하하...』

가족상황으로는 장남 炳徽씨는 육군소장으로 정년퇴임, 영남화학에 재직하다 지금은 가사에 종사중, 次男 炳雄씨는 정치학박사로 경북대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3男 炳三씨는 서울상대졸업 대우실업 무역부장, 맞사위 權赫春씨는 현재 강원도 교위 학무국장, 둘째 사위 李英一씨는 元通高等교장으로 있는 가족으로 金지부장은 정말로 다복한 분이다.

기자는 위로는 金지부장을 모시고 있는 林容直국장을 위시하여 威俊鎬과장, 安碩錄소장등 강원도 지부 팀은 참멋있게 짜여진 팀이구나를 느끼며 上京하는 고속버스에 올랐다.